

벤츠 E-클래스 10세대 모델 20만대 달성 '수입차 최초'

2016년 6월 국내 공식 출시...2017년부터 판매 1위 사수 고급스러운 디자인·첨단기능·최고 수준의 안전사양 인기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수입차 1위 왕좌를 지키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럭셔리 비즈니스 세단 10세대 E-클래스가 또 다른 기록을 세웠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0세대 E-클래스가 국내 수입차 시장 최초로 단일 모델 20만대 판매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2016년 6월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 10세대 E-클래스(W213)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외관 디자인, 고급 소재와 다채로운 첨단기능의 조화를 이룬 실내 인테리어, 첨단주행 보조 시스템과 최고수준의 안전사양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10세대 E-클래스는 뛰어난 성능과 제품성을 인정받으면서 '한국자동차기자협회 2017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올해의 수입차'로 선정되기도 했다.

10세대 E-클래스는 출시 3년만인 2019년 7월 수입차 최초로 단일 모델 누적 판매량 10만대를 기록한 바 있다. 또 한국수입차협회(KAIDA) 기준 2017년부터 5년 연속 수입차 판매량 1위로 베스트셀링 모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특히 E-클래스는 지난 11월 판매량 기준 누적 판매량 20만대를 돌파하며 '단일 모델 20만대 판매'라는 수입차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E-클래스는 2020년 10세대 부분 변경 모델을 국내 공식 출시한 바 있다. 외관은 완전 변경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를 거쳤다.

새로운 디자인의 헤드램프는 날렵한 모습으로 역동적인 인상을 주고,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 기능이 포함된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적용돼 주야간 차별화된 디자인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후면부에는 트렁크 라인 안쪽까지 넓어진 신규

디자인의 분할형 테일램프가 적용됐고, 이와 더불어 트렁크 리드 및 리어 범퍼의 디자인 변경으로 스타일도 새로워졌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이었다.

무엇보다 실내는 당시 브랜드 최초로 적용된 차세대 지능형 스티어링 휠과 첨단기술로 주목받았다.

스티어링 휠의 림 앞면과 뒷면에 센터 패드를 탑재해 정전식 핸드-오프(Capacitive Hands-Off) 감지 기능을 갖춰 물리적인 움직임 없이도, 차량 내 각종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제어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운전자는 차량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스티어링 휠 스포크에 있는 터치 버튼을 통해 스마트폰처럼 편리하게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다.

또 전 모델에 기본으로 아이드 스크린 콕핏 디스플레이와 MBUX, 터치로 조작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모델 최초로 적용된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최신 버전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가 전 모델에 기본 사양으로 탑재됐다.

벤츠 코리아는 10세대 E-클래스가 출시 후 국내 고객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럭셔리한 외관 디자인'과 '편안한 주행감'을 꼽았다.

실제 벤츠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차 구매자 설문조사(NCBS, New Car Buyer Survey)에 따르면, E-클래스 제품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외관 디자인'과 '편안한 주행'이었다.

벤츠 코리아는 또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 또한 이번 20만대 판매라는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메르세데스-벤츠의 10세대 E-클래스가 국내 수입차 중 최초로 '단일 모델 20만대 판매'라는 기록을 세웠다. 사진은 10세대 E-클래스. <광주일보 자료사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벤츠 코리아는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 고객들의 피드백을 분석하며 E-클래스의 연식 변경을 통해 매년 상품성을 개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E-클래스 세단 글로벌 판매 1위 국가라는 점에서 벤츠 본사에서 한국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해 국내 고객

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더 뉴 E-클래스 출시 전 벤츠 본사에서 직접 제품에 대한 한국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국에서 카 클리닉(Car Clinic)을 진행하며 고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이를 실제 제품에 반영하기도 했다.

토마스 클라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10세대 E-클래스 20만대 판매 달성은

벤츠를 선택하고 성원해주신 한국 고객들이 만들어 준 결과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는 점에서 보다 뛰어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고객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쾌속 질주

캐스퍼, 경차 시장 부활 이끈다

11월까지 4만4493대 판매...연간 5만대 돌파 예상 2012년 이후 판매 부진 경차 시장, 올해 13만대 회복

'광주형 일자리'의 마중물로 탄생한 캐스퍼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 경차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역대 최대 월 판매량을 기록하며 '경차 1위' 왕좌에 오른 캐스퍼의 활약으로 10만대 아래 추락했던 경차 시장 규모가 올해 13만대 이상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국내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첫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캐스퍼는 지난 달 총 5573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월 최대 판매량을 갱신한 것이다.

현대차 내 판매순위도 포터(7020대)와 아반떼(5700대)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캐스퍼는 올해 1~11월까지 누적판매는 총 4만4493대로, 올해 경차 시장 1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라이벌로 꼽히는 기아의 레이가 4만583대 판매를 기록하는 등 뒤쫓고 있지만, 4000여대 상당의 차이를 따라잡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캐스퍼는 지난해 9월 출시 후 11월 3965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한차례도 월 판매량이 3000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올해 5~7월, 9월에는 4000대를 넘었고 지난달에는 5000대도 돌파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신규 트림 '디 에센셜'(The Essential)이 출시 후 2주만에 계약 대수 1500대를 돌파하는 등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추세라고 하면 캐스퍼의 연간 판매 5만대 돌파도 예상된다.

이처럼 캐스퍼의 활약에 힘입어 위축되던 국내 경차 시장도 다시 꿈을 거리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경차 판매량은 2012년 21만6221대로 최대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면치 못하다가 지난해 9만8781대로 10만대 전선이 뚫렸다. 10년 새 반토막 난 셈이다.

하지만 캐스퍼가 예상 밖의 큰 인기를 끌면서 국내 경차 시장은 올해 1~10월 10만8807대를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판매량을 뛰어넘었



다. 올해 국내 경차 시장 규모가 13만대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캐스퍼의 경쟁 차급 판매 1위를 기념해 12월 한 달 동안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캐스퍼와 캐스퍼 밴 구매 고객에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캐스퍼-캐스퍼 밴 구매 고객 중 현대차 전용카드 50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30만원의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이밖에 이달 캐스퍼-캐스퍼 밴을 계약, 출고하는 고객에게 출고일로부터 1년까지(주행거리 2만 km 내) 바디 케어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캐스퍼 구매 고객은 위 혜택들을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이번 고객 감사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캐스퍼 홈페이지(https://casper.hyundai.com)를 참고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마세라티 무이자 프로모션 12월 기블리·르반떼 모델 등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여파로 자동차를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마세라티가 특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탈리안 하이퍼포먼스 럭셔리카 마세라티는 12월 한 달 간 기블리, 르반떼, 콰트로포르테 전 모델을 무이자 금융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2022 마세라티 특별 무이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연말을 맞아 고금리 시대에 고객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마세라티는 특별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통해 2022년식 마세라티 전 차종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선수금을 30%를 납부, 제휴 금융사를 이용 시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마세라티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이외에 특별 장기 저금리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8개 마세라티 전시장 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쏘렌토 '세단 독점' 깬다

1~11월 6만1509대 판매...현대차 그랜저 등 제치고 내수 1위 올라 2002년 출시 후 SUV 시장 선도...하이브리드 모델 가세 '독주' 채비

기아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쏘렌토가 레저용 차량(RV)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최대 판매 승용차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1위는 무조건 세단' 기록이 깨질지 주목된다.

5일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쏘렌토는 올 11월까지 내수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 6만1509대로 승용차 중 1위다. 이어 현대차 그랜저(5만8113대), 기아 카니발(5만1735대), 현대차 아반떼(5만508대), 기아 스포티지(4만9198대)가 5위권을 채우고 있다.

SUV를 포함한 RV 차종 선호도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높아졌으나 연간 판매 1위 승용

차는 늘 세단 몫이었다. 현대차 쏘나타가 2000~2010년과 2014~2015년 13차례, 아반떼가 2011~2013년과 2016년 5차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최근 5년간(2017~2021년)은 현대차 그랜저가 1위를 독점했다.

RV차는 그간 2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0년 기아 카렌스, 2004년과 2018년 현대차 싼타페, 2021년 카니발이 2위까지 올랐다. 쏘렌토는 2016년 3위가 종전 최고 기록이다.

2002년 첫 출시된 쏘렌토는 산타페와 함께 RV 붐을 일으킨 쌍두마차였으나 연간 판매 순위는 늘 세단에 밀려 대부분 5위권 아래였다. 그러

다 2014년 등장한 3세대 쏘렌토가 큰 인기를 끌어 승용 3위에 올랐고, 이어 2020년 출시된 4세대 쏘렌토가 작년까지 2년 내리 4위를 기록하며 선두권에 진입했다.

올해 2위인 그랜저와 격차는 약 3400대로, 쏘렌토 내수 판매량이 월 5000~6000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쏘렌토는 2002년 1세대 출시 이후 꾸준히 국내 SUV 시장을 선도해 온 모델"이라며 "하이브리드(HEV) 모델까지 더해

져 한동안은 경쟁 상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출시 이후 쏘렌토의 국내 누적 판매량은 지난 6월 100만대를 넘어 11월까지 103만 4000여대다. 4세대부터 추가된 HEV는 올해 쏘렌토 판매량의 70%를 차지할 만큼 인기 모델이 됐고, 출시 33개월 만인 지난달 10만대를 돌파해 국산 HEV 중 최단기간에 10만대 고지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전기차 중고 시세 하락할 듯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2년 이내 740여개 모델의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12월 전기 중고차 시세가 최대 8% 하락하겠다고 5일 전망했다.

대표 모델인 현대 아이오닉6는 전월 대비 8.4%, 기아 EV6는 7.6%,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5.6% 각각 하락할 것으로 봤다.

전기차는 매년 정부의 구매보조금이 줄어 실질적인 신차 구매 가격이 상승하므로 연말이 되면 중고차 시세도 함께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올 연말은 11월에 이어 하락이 이어질 전망이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올 초 중고 전기차가 가격이 신차보다 높아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빚어졌고, 중고차 매물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시세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